

약속 V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.

하천IC~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(호명터널) 확정

관리번호	분야	중점 추진과제	사업주체	신규여부	사업시기	완료시기
V-3	건설	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	국토부	계속	장기	임기 외
추진부서	건설도시국	건설과	도로시설팀장	이진어(2425)	담당자	김경태(2428)
추진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후계속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추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추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류 <input type="checkbox"/> 폐기				공정률	65%

□ 추진방향

- 국도37호선 ‘신천-삼회’구간은 도로의 평면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북한강 및 인접 산지 법면부로 인해 기존 국도의 선형개량이 어려움
- 또한 연계되는 국도46호선 및 서울~양양 고속도로의 상습 지·정체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국도37호선 ‘신천~삼회’구간을 ‘하천IC~가평대교’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국도의 고유기능인 지역 간 이동성 제고 및 청평호의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청평호 주변도로의 통과교통량 전환으로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18 ~ 2030 ※ 사업 전체 완료시점 기준
- 사업위치: 청평면 하천리 하천IC ~ 청평면 고성리 고성교차로(가평대교)
- 사업규모: 연장(L)=7.4km, 폭원(B)=10.0m (터널 3개소/5.1km)
- 소요예산: 107,300백만원(국비 100%)
- 사업내용: 국도37호선 노선변경 및 개설

□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

구분	목표	추진계획	목표이행률	공정률
		계	100	65
2022 하반기	타당성 조사 및 검토	· 국도37호선 노선변경 타당성 조사 및 검토	20	20
2023		· 국도37호선 노선변경 타당성 조사 및 검토 · 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지속 건의	20	20
2024	타당성 조사 및 검토 국도 5개년계획 건의	· 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지속 건의	20	20
2025		· 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지속 건의	20	5
2026 상반기	국도 5개년계획 반영	· 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	20	

□ 추진실적

구분		추진실적	비고
2023	1분기	· 당정협의회 건의 ·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(최춘식 국회의원) · 「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」 수요조사 자료 제출(가평군→경기도) · 가평군 광역도로사업 서울청 현장 방문 시 건의	
	2분기	· 현안사업 건의(가평군→지역구 국회의원) ·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가평군 사업 건의(가평군→경기도) · 제3차 국토부장관 간담회 가평군 현안사항 건의 · 가평군 광역도로사업 서울청 방문 건의 및 당정협의회 건의	
2024	1분기	·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·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 건의	
	2분기	· 「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」 사업 건의(가평군→경기도) · 「북한강 권역 경기북부 대개발 관광콘텐츠 개발」 사업 건의(가평군→경기도) · 국회 방문 건의(3회)	
	3분기	· 경기도 시·군 현장간담회 시 건의 · 「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」 사업 선정(경기도)	
	4분기	·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건의 · 「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」 참석 · 「경기 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설명회」 참석 ※ 현재 지선국도 노선지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중	
2025	1분기	· 당정협의회 건의	
	2분기	· 「경기북부 대개발 구상」 추가사업 건의	
	3분기	·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건의	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- 상기 사업은 현재까지 국도로 미지정된 노선으로서 B/C 등이 부족하여 단기간 내 사업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,
- 「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」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, '23. 5.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·건의한 결과, 국도로 미지정된 노선이므로 우선 노선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, '노선지정을 위한 지선국도 지정 사업' 및 '제6차 국도·국지도 5개년계획(2026~2030) 사업' 두 가지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기로 협의하여 추진하였음.
- 그러나 지선 국도 지정 사업이 선정 제외됨에 따라 기존 국도37호선 노선을 건의하고 있는 하천IC-고성 도로 개설사업 구간으로 변경 요청하겠음.

□ 향후계획

- 관계기관 지속 건의 예정(2026. 1월~)

□ 기대효과

- 국도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설악~청평 간 단축도로(터널) 개설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지·정체 해소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도모
- 불합리한 국도37호선 노선변경으로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제공

□ 사진

